종단소식

조계종

동화사 4월10일 주지선거

대구 동화사(주지 무공)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24일 동별당에서 모임을 갖고 4월10일을 신임주지 선거일로 확정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7일전인 4월3일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하며 선거일 20일전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법주사 소년가장에 장학금

취담 일현대종사 문도회(대표 윤월·철웅)는 9일 오후2시 마곡사 연화당에서 문도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문도회의에서는 정관 및 각종 문도 현안문제에 대한 안건등이 논의될 방침이다.

마곡사 일현대종사 문도회

보은 법주사(주지 혜광)는 2월23일 접견실에서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소년소녀가장 10명에게 총 1백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태고종

묘법사 위기극복 방생법회

진해 묘법사(주지 이청은)는 2월17일 고성 문수사 저수지에서 신도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국토 구현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공주 용천사 복원불사 지원

충남종무원(종무원장 장대연)은 2월26일 지난달 눈사태로 건물일부가 파손된 공주 용천사 불사를 돕기 위해 종무원 산하 사찰을 중심으로 기금마련 운동을 전개하고 용천사에 1백만원을 전달했다.

천태종

구인사 강원 졸업·입학식

구인사 강원(강원장 운덕)은 2월26일 인광당 5층에서 졸업식 및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총무원 관계자와 졸업생 8명 입학생 15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히 치뤄졌으며, 강원장의 훈시 및 상견례 등으로 진행됐다.

삼운사 차량안전 기원법회

춘천지회 삼운사(주지 월도)는 2월28일 법당에서 차량안전 운행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으며, 무사고 운행을 위한 촛불점등식을 가졌다.

진각종

원정각 대종사 추모불사

밀각심인당(주교 회정정사)은 2월25일 대강당에서 원정각 대종사 추모불사를 가졌다.

추모불사는 무상게송 경전봉독, 추념사, 추모의 노래, 일동합장례 등으로 진행됐다. 또 차생활에 곁들인 소품 전시회와 종조 회당 손규상 대종사 사진 전시회도 열렸다.

전국 심인당 열반절 법회

전국의 심인당은 15일 열반절을 맞아 일제히 불사를 연다.

성초 통리원장은 교도들에게 "열반절은 부처님의 자비심을 기리고, 불국토 건설을 위한 용맹정진을 다짐하는 날"이라며 "진정한 열반의 뜻을 새기고 자비의 행을 실천해 즉신성불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문종

보문사 국태민안 법회

보문사(주지 황법준)는 2월26일부터 28일까지 국태민안 및 경제위기 극복 3일 신중기도법회를 봉행했다.

법준스님은 "위기극복을 위해 누가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기 보다 불자 개개인이 이웃과 나라를 위해 앞장서자"고 말했다.

총지종

전국교구 부국강병 불공

통리원(통리원장 총지화)은 2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49일간 전국 교구 단위별 진호국가 불공을 갖는다.

각 교구 교도별로 가정에서 진행되는 이번 불공에서는 수호국계주진언 '옴흠야호사'를 외며 국태민안 및 부국강병을 기원하게 된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신행포교 종합도량 충북 禪불교회관 '첫 삽'

10여개 단체 후원 내년 6월 완공
어린이집·교양대·법당 등 갖춰
불자전법·문화생활 중심지 기대

충북지역 포교와 신행생활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선불교회관이 건립된다. 충북 선불교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만호)는 2월 24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정일스님(선학원 이사장), 혜광스님(법주사 주지), 주병덕지사(충청북도)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사에 착수했다.

충북 선불교회관은 연건평 1천1백79평에 지상5층 지하2층 규모로 내년 6월 완공예정이다. 1층 보시관에는 불교용품점 및 각종 편의시설이, 2층 인욕관에는 어린이집 등 청소년관련단체가, 3층 지계관에는 신행단체 사무실, 교양대학등이, 4층 문화관에는 공연장과 회의실이, 5층 지혜관에는 법당 선방 상담실 등이 입주하게 될 계획이다.

충북 선불교회관건립추진위원장 이만호씨는 "선불교회관이 청주불교방송국과 더불어 충북 불교계의 흩어진 불심을 수습하여 포교활동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는데 건립 목적이 있다"며 "승속을 망라해 모든 불자들이 신심을 다지며 각종 신행·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충북 선불교회관은 92년 정일스님(선학원 이사장)이 건립을 발원, 청주청원불교연합회, 청주불교단체협의회, 충북예비역불자회, 청주운전기사불자연합회 등 10여개 충북지역 신행단체의 후원으로 6년여의 산고끝에 기공됐다.

◇충북 선불교회관 건립추진위원회는 2월24일 선불교회관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사에 착수했다.

한편 충북 선불교회관불사는 경제적 난국으로 불사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행단체들이 직접 나서 불사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충북 선불교회관은 지역 신행단체와 각종 문화생활을 위한 불교종합회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어서 향후 충북 불교계 신행포교의 새 지평을 열것으로 기대된다.

청주=김중근 기자

대구 신행단체련 정기총회
환경보호등 운영계획 확정

대구광역시 신행단체연합회(회장 유상종)는 2월 19일 거송가든에서 9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이날 지난해 11월 열린 창립법회 결산내역을 공개하고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후원회 동참 △환경보호캠페인 전개 △훈할머니 돕기 △불우이웃돕기 탁발모금 등 13개항의 98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 다도교실 열어
통도사 부산포교원

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 국제포교부는 2월22일 외국인을 위한 다도교실을 개최했다.

외국인들의 한국문화 체험을 위해 마련된 다도교실은 부산 경남일원의 외국인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다도교실은 여란다회(회장 송옥자)의 다도시연을 시작으로 외국인들이 직접 다식과 다례를 배우는 순서로 진행됐다.

통도사 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는 다도교실에 이어 봉축연등만들기, 사찰답사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해병대 '예수부대 발언' 은폐 의혹

문제발언 테잎 소각
불교대책위 조사촉구

전도봉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를 예수의 부대로 만들겠다"는 종교편향 발언문제가 확대되자 당시 발언내용이 담긴 녹음테잎 등이 폐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은폐의혹이 일고 있다.

군불교진흥회 사무국장 이하전법사는 26일 조계종포교원 기자간담회에서 "19일 밤10시 해병대에 근무하는 한 장교로부터 '전사령관 발언이 담긴 자료를 소각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법사는 "이 장교의 요청에 따라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해병대사령부 정훈참모실은 26일 "소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각 여부는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불교운동연합 실천승가회 평불협 자비의전화 등 교계 7개 단체로 구성된 종교편향대책위 준비위는 2월23일 전사령관 종교편향 발언과 관련해 진상조사 및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각 발송했다.

준비위는 공문에서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정 이후 일어난 일임을 지적하고 △엄중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광덕사·안양암서 이교도 난동

목사등 1백여명 "예수믿으라" 구호

천안시 광덕면 광덕사(주지 서광)와 안양암(주지 성탁)에 현직 목사와 전도사들이 신도 1백여명과 함께 침입해 훼불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 불교계가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광덕사와 안양암측에 따르면 2월 22일 오후 2시경 갈릴리 교회 소속 목사, 전도사등 1백여명이 경내를 무단 침입,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꽹과리를 치며 '주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것. 특히 저지하는 비구니스님들을 향해 더 큰 소리로 대항하는 등 훼불행위는 30여분간 계속됐다. 이에대해 안양암 주지 성탁스님은 22일 갈릴리교회측에 전화로 정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2월27일)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천안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묵조·보광사 주지)는 2월27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와 함께 갈릴리 교회측에 정식 사과 및 지역 언론에 사과성명서를 게재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현상태로" "전면해체"
익산미륵사탑 복원논란

우리나라 최고의 석탑으로 알려진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의 복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제시대때 덧씌운 콘크리트를 보충하는 선에서 현상태로 보존하느냐 아니면 전면 해체한 뒤 석탑의 원형을 보존하는냐가 주요 관건.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탑이 무너지면 심하게 산화된 옥개석 등 탑재가 산산조각나 복원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해체복원을 하되 모든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에 담아 역사적 자료로 남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 일부에서는 "해체복원은 석탑이 지닌 참맛을 훼손할 위험이 높다"며 "붕괴 위험을 막는 선에서 지금처럼 허물어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최근 5천7백여만원을 들여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현재 6층(본래 9층으로 추정)까지만 남아있는 석탑에 대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의뢰, 결과에 따라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해체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 사찰문화재 훼손 심각

운주사·쌍봉사등 위치·형상 마구 변경

광주 전남지역의 각 사찰들이 중창불사를 하면서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등 문화재 훼손 사례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월18일 전남대 국제회의동에서 열린 제11회 전남 고문화 심포지엄에서 천득염교수(전남대 건축학과)는 '전남지방 전통건축의 특성과 원형보존 및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장흥 보림사를 비롯 화순 운주사, 쌍봉사, 연동사지 등의 중창불사 추진과정에서 엄청난 문화유적의 훼손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소홀했다"며 "사찰문화재는 국민 전체가 향유해야 할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재산인 양 임의대로 위치·현상·구조 등을 변경하는 문화재 파괴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천교수는 "사찰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적의 실태를 확인해야 하며, 문화유적권역 지정 등 장기적인 보존 및 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세워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승단, 군승복식 새로 제정한다

삭발염의 스님과 구별

군승단(단장 이희용)은 삭발염의를 하지 않은 군승이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 의례를 집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종단과의 협의를 거쳐 새 군승복식을 제정키로 했다. 군승단은 빠르면 25일 열리는 군승단총회 이전에 새로운 복식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희용 군승단장은 2월 24일 월주 조계종총무원장을 방문, △가사와 장삼의 색깔을 바꾸는 방안 △새로운 형태의 법복 제작 △사미·사미니 복식제도에 착안 소매와 옷깃에 진청색 띠를 두르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제출했다.

동서화합 천도재
25일 망월동 묘지서

영호남 화합을 위한 범패의식이 광주 망월동묘지에서 열린다.

동서화합을 위한 5·18 희생영령 위령천도대재 봉행위원회(위원장 삼중스님)는 25일 망월동 묘지에서 범패의식으로 천도재를 봉행한다.

이날 천도재에는 부산 대구를 비롯 경상남북도 불자 1천여명이 참가해 희생영령들의 넋을 추모한다.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부처님조성·석탑·석등·석비·부도·불사건축·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석물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불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성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염불 禪 철야정진

올곧은 자세로 심신을 이완시키고 특히 허와 턱을 완벽하게 이완시키고 불성의 운률에 맞춰 행주좌와 동정간에 불성으로 염불하고 자성이 귀로 듣는 일념의 수행으로 염불삼매 환희심에 찬란한 자성의 부처를 체험하십시요.

1. 염불수행시 허가 입천장을 탁탁쳐야 대뇌가 각성되어, 정신이 또렷또렷해지며 번뇌망상이 사라짐을 체험
2. 들숨시 염불이어짐과 자동으로 침이 넘어가고 몸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력이 좋아짐을 체험
3. 호체합장 염불은 자동단전호흡되며, 올곧은 자세가 계속 유지되는 완벽한 자세로 몸병 마음병, 전생병이 치유됨과 단전형이 뚜렷 환벽한 호흡이 됨을 체험
4. 수행중 자금빛 부처님, 황금연꽃, 백색광명, 수행자의 몸에서 황금빛 오로라를 보게되며 업장소멸 체험
5.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박자에 맞춘 염불삼매로 한두시간 정도는 손끝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세로 온뜸이 집착 극복을 체험
6. 목탁소리나 타인의 염불소리는 잘 들리나 자신의 염불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때 자신의 귀를 스테레오로 들리게 하여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은 올곧은 염불삼매체험.
7. 염불수행시 무의식 자동단전호흡되고 수승화강되어 손, 발, 배는 따뜻해지고 이마와 정수리는 시원하며 머리는 맑고 또렷또렷해짐을 체험
8. 상근기가 아니면 좌두장선하지 말고 염불소리 들으며 호흡을 세고 단전복부를 관하며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자나 깨나, 좋으나 싫으나, 식가모니불 명호를 끊임없이 칭명하면 자동으로 염불됨과 신비한 신통력을 체험. 및 비전의 수행통해 일생 잘기, 몸살, 위장병 안걸리고 화병, 상기병, 불면증, 우울증, 디스크, 스트레스 쉽게 극복됨을 체험 특히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단시일에 극복한 수행자 많음

⊙수행내용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한글금강경 봉독, 참선기초수행, 와선호흡법, 행선염불, 신비의 도인 건강법
⊙공양미, 넉넉한 복장, 수련회비(2만원:한가족 동일)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일요일 아침 8시 철야 용맹정진
⊙월요일~금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불자의 기본수행법 수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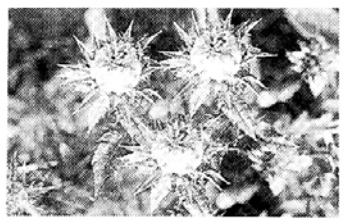
출가희망자 수행체험(3일,7일,15일,30일,50일,100일)
「비전의 수행테크닉 전수로 올곧은 수행체험과 신심증대」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 (0338) 71-7745 (수행상담시간 오후 5시~8시)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현수막

불기254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에 부처님 사진을 칼라로 넣어서 제작해 드립니다.
⊙ 공정이 복잡하여 미리 주문을 받고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 가격: 5m×90cm에 ₩35,000(배달비 포함)

한울기획
(02) 474-2040
474-2041
FAX : (02) 477-2316